

연중 제6주일

제 1 독서 : 집회 15. 15-20

제 2 독서 : 1고린 2. 6-10

복 음 : 마태 5. 17-37

# 순정이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 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마태5.19).

## 강론

### “율법의 완성”

김진석 신부 / 조촌동 천주교회

하느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율법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가장 큰 계명을 다양하게 펼쳐지는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지침들이다.

이 율법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 창조된 사람의 품위와 존엄성을 지켜주며,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순례하는 선택된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세상의 못된 통치자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만드는 법이나, 뒷전으로는 자신의 이득을 챙기면서 기득권자의 횡포를 옹호하기 위해 만드는 법, 또는 직무 태만이나 직무 유기 등을 정당화하기 위해 남발하는 법과는 그 존재 목적이 다른 거룩한 법이다.

하느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성실하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완성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 형식적으로도 지킬 수 있고, 벌이 무서워 어쩔 수 없이 지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율법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타성적으로나 체면 치레를 위해서 지킨다면,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율법주의나 형식주의에 길들인 위선자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때 율법은 사람을 하느님 편에 서게 하는 은혜로운 도구가 아니라, 하느님과 사람의 친교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율법은 그 자체로 좋은 목적을 가진 거룩한 도구이지만 지키는 태도에 따라 선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는 표현으로써 덧붙인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시키려면 형식적인 율법주의로 만족하며 법조문을 지키기에 급급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법조문에 들어 있는 정신과 목적을 실현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수많은 법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지키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자.

## 소리

### “부끄러운 무소불식”

옛날 옛적부터 우리 민족은 농사를 주업으로 삼아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해왔다.

가축도 기르고 야생동물을 포획해 먹거나 약용으로 사용해오기도 했지만 이는 최소한의 영양보충이나 신병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 요즘처럼 몸보신을 위해 무작정 살생을 하지는 않았다.

사냥꾼에게 쫓기는 노루를 구해준 나무꾼의 이야기에 서부터 흥부전에 이르기까지 동물을 애호하는 설화도 많거니와 감나무에 까치밥을 남겨두는 관습도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떤가.

식생활은 크게 윤택해졌음에도 몸에 좋다면 곤충이고 동물이고 무소불식(無所不食) 먹지 않는 것이 없다. 먹거리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몸에 좋다 하여 찾는 사람이 많은 탓으로 깊은 동면에 빠진 개구리와 뱀을 배터리와 중장비까지 동원해 마구잡이로 대량 살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잘못된 보신 풍조 때문에 우리나라에 서식해온 1만6천여종의 생물 가운데 1백80여종이 이미 멸종했거나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다.

요즘 같은 야생동식물의 불법 포획과 채취가 계속된다면 자연생태계가 훼손돼 사람들의 생존에도 나쁜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길이 후손들에게 알뜰하게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믿는 이들의 도리가 아닐는지. **☞**

### 순정이 산책



이웃을 도운 것은 예수님께 바친 것

교육국에서

“우리 본당 주일학교는?”

• 선교는 주일학교에서부터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는 올해 우리 교구의 사목지침이다. ‘복음화 2,000년’을 앞두고 인류 복음선교에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새롭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 하여라.”(마르 16, 15)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마태 28, 20)고 하신 당부에 “예”라는 응답을 드려야 될 때이다.

바티칸 공의회가 마무리 지어갈 무렵 교황 바오로 6세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미래의 역사가 변영할 것인가 쇠퇴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는 현대의 교회를 정의하려고 한다면 먼저 ‘그 시대에 있어서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교회는 사랑했다. 참다운 선교정신을 가지고 사랑했다.’ 모든 사람은 이 거룩한 모임이 열심한 가톨릭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도가 될 것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같은 말씀에서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사명임을 더욱 명백히 제시해준다.

선교의 사명이란 이미 받은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알려주고 닮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막중한 소명이자 의무이다. 우리가 이 사명에 소홀히 한다면 어린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는가? 이같은 생각을 해볼 때 주일학교의 중요성과 교리교사라는 봉사직무는 선교의 차원에서 참으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 누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는가?

새학년을 맞이한 각 본당의 주일학교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지도해줄 교리교사를 찾고 있다.

교리교사의 임무는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로 새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 형성을 하도록 돕는 일이다. 이처럼 교리교사란 지식만 전달하는 일반교육과 달리 아동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의 생활과 체험을 통하여 알도록 해주고 복음 안의 주님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므로 그 직책을 수행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교육은 교사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요, 교사의 신앙 체현이 아동 속으로 옮겨지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성령의 활동이 이런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지 교사가 아

동들의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교리교사에게는 무엇보다도 교사 자신의 신앙심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한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다듬어지고 그리스도와 닮은 인격자로서 학생들 앞에 존재해야 한다. 또한 주일학교 교사는 자신이 충실한 그리스도인일 것은 물론이고 어린이, 학생들의 영혼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의식이 참으로 요구된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참생명을 위해서 봉헌하는 교사를 원하고 있다. 주일학교 교사의 자격이란 우선적으로 굳은 신앙의 바탕 위에 소명의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묻게 된다.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로마 12, 1)라고 바오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느님은 생동감있고 거룩하게 봉헌된 교사를 필요로 하신다. 소명의식이 확실하다면 결혼을 하더라도 또 일이 많고 분주하게 되더라도 동요되지 않을 것이다.

• 주일학교 교사로서 선교의 대열에

우리 주일학교 현실은 대부분의 교사가 너무 젊고, 그나마 소명감이 부족하여 결혼하면 교사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어 교리교육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가정 교육의 경험자인 부모가 주일학교 교사가 된다면 어린이의 부모나 어린이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며, 경험이 부족한 젊은 교사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교리교사는 교회의 사명 중에서 ‘말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불리움을 받았다. 이 소중한 소명예의 초대에 응답하는 열심한 평신도들의 참여를 교회는, 각 본당의 주일학교는 기다리고 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교리교사들이 긍지를 갖고 ‘말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하며 현직을 떠난 교사일지라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야 한다. 더욱이 학부모로서도 교리교육에 지속적으로 깊이있게 참여해야 하겠다.

\*참고 · 공의회 문헌 해설 총서 · 사목회의 의안  
교육국에서는 교리교사들의 자질 향상 및 소명감 고취를 위해 92년도에 이어 교사학교를 개설하여 지금 교육중에 있다.

- 1차(재임교사 대상) : 2월8일-13일 전동 교육관
- 2차(신임교사 대상) : 2월15일-20일 전동 교육관
- 3차(직장인 대상) : 2월27일-3월1일 나머지 피정의 집

**송학동 성당기(도안) 공모**  
• 접수 마감일: 1993년 3월 31일  
• 시상 내용  
대상1명: 상패 및 부상(50만원)  
입선작2명: 상패 및 부상(210만원)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 접수 및 문의처:  
송학동 성당 (0653)841-9713

장기·화재·운전자 보험  
**한국 자동차 보험 Co.**  
완주 삼례 대리점  
대표 김 진 권(스테파노)  
반 명 선(아네스)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920-9  
☎ (0652)291-2265

**진선미 꽃집**  
각종 생화  
신부 부케 전문  
이 명 자(마리아)  
범 덕 배(디 또)

**미지트 원목가구**  
중앙동 대리점  
전주백화점 옆  
☎ 진선미 84-2628  
미지트 84-8725

5분 교리 24

“죄”

원죄가 자신의 탓없이 인류의 공동 운명으로 물려받은 것이라 한다면 본죄는 계명을 밝히 알면서도 자유의사로 금한 것을 범하거나, 행해야 할 것을 행치 않는 것을 말한다. 본죄는 대죄와 소죄로 구분한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매우 나쁘다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외부의 강요없이 스스로 그 행동을 취하고 있다면 그는 대죄를 범하는 것이다. 성서에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 도둑질, 탐욕”(1고린 6,9) 등 악행이 열거되고 있으나 그것이 곧 대죄의 완벽한 목록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나님과 형제 사랑에 위배되는 일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 생명의 참여를 박탈당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포기한다. 하나님과의 친교를 상실한 채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한다. 지옥이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참된 행복을 상실하는 것이며 형제적으로 서로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소죄는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대죄처럼 하나님과의 친교와 은총의 생명을 전부 박탈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작은 위반이요 실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죄의 위험은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속담처럼 대죄로 떨어지기 쉽다는데 있다. 형제적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생명력인 회생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소죄의 위험에 떨어진다. 그러므로 나눔과 용서의 회생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민활성이 둔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처럼 대죄와 소죄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행복을 아주 잃게도 하고, 조금씩 갉아먹어 병든 사람이 되게 하는 죄이요, 원수이다.

\*참고 자료 : 피고인석의 하나님(VHS 28분) · 인간과 죄(책)

교 구 소 식

※엄마들을 위한 영화 상영 : 2월15일(월) 오후3시 교구청 별관1층, 제목-장화 신은 고양이.

1. 초·중·고 교리교사 학교 : 2월15일-20일 전동 성당.
2. 재무 평의회 : 2월18일(목) 오전10시 교구청.
3. 남성 44차 꾸르실료 : 2월18일-21일 천호 피정의 집.
4. 가톨릭 사진가회 촬영모임 : 2월21일(일) 오전7시 가톨릭센터.
5. 전화번호 안내 : 원평 성당 수녀원 45-2843, 사무실 43-0881, 영등동 성당 FAX 52-2240, 효자동 성당 FAX 223-3821.
6. 성서세미나 : 2월27일(토) 오후2시-5시, 2월28일(일) 오전10시-5시, 3월1일(월) 오전10시-오후5시, 가톨릭센터 회의실, 강사-서윤교구, 회비-10,000원.
7. 교도소후원회 월례미사 : 2월15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 **성소모임** 전교가르멜수녀회 : 2월21일 오후2시 서신동 성당 수녀원 (0652)74-9262.  
살레시오수도회 : 2월27일 오후6시-3월1일 대전수도원 (062)55-0332.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새학용품을 사기 전에

새학기마다 새로운 학용품을 사야 된다는 생각을 버립니다. 지난 학기에 쓰다가만 학용품을 재사용하고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여 자녀에게 절약의 정신을 심어줍니다.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영자(헬레나)

한방 본초 농축 미래 건강식품

E. EXCEL

대리점 모집(사업에 뜻있으신 분)

※주부 사원 모집

전광원(마르크)

☎ (0652)74-7787

생수 공급합니다.

지리산 보천광천탄수

전주·이리·군산·김제·부안지역 배달

전화 : (0652)85-4205

전주교구 가톨릭 농민회장 송남수

지도신부 권이복

※수익금은 가톨릭 농민회 생명공동체 운동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요심이 김병오



사무직 직원 모집

- 1.모집부서: 보도, 출판, 교열 등-○명
- 2.응시자격: ①4년제 정규대학(국문과·신방과·영문과) 학사학위 취득한 남녀(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②영세한 지 5년 이상된 자  
③연령 제한 없음
- 3.제출서류: ①지원서(소경양식)-교구청 사무처에 구비되어 있음.  
②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③4분당신부 추천서 각1통
- 4.지원서 교부 및 접수  
①교부 및 접수기간: 2.15(월)부터 2.25(목)까지(월-금 09:30-17:00, 토 09:30-12:30)  
②교부 및 접수처: 전주교구 사무처(전화: 85-0041)
- 5.채용 방법: 1차-서류전형  
2차-면접 및 필기시험(추후 통보)
- 6.기타: ①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주방 직원 구함

자격: 영세한 지 3년 이상(1명)  
제출서류: 자필이력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제출미감: 1993년 3월 2일  
면접일자: 1993년 3월 3일  
전주교구청 관리국 ☎ 85-0041

제20차정기총회소집공고

- 1.개최일시: 93.2.27(토) 13시30분
- 2.개최장소: 전북예수회관4층 공연장
- 3.부의안건 1992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의 5건  
1993. 2. 14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김병오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량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 ※ 그날 성서귀절을 한번 더 읽으시다.
1. 사목회 임원개편: 구역부장-김규례(베로니카)→서성남(모니카) 재경부차장-서성남(모니카)→김영숙(유리안나) 애령부장-김종록(리노)→서용문(요한) 수고하시겠습니다.
  2. 가정방문 안내: 오후2시부터 17일-중노5반. 18일-중노6반. 19일-중노7반.
  3. 대건회 정기총회: 15일 후6시30분 신라회관.
  4. 모임: ①여성연합회(16일 어머니미사 후) ②제속형제회(20일 후2시)
  5. 알림: 가정에있는 성지가지 사무실에 내주세요.
- 금주청소: 중노5,6반. 차주청소-중노7,8반.  
 □ 지난주 봉헌금: 968,510원 □ 교무금: 1,328,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 인

1. 예비자 교리시간  
 매주 일요일 공식미사 후 (수녀님반)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신부님반)
  2. 남성44차 꾸르실료(18~21): 황길평(프란치스코) 성태돈(요셉)씨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금주전례: 해설-오교성, 독서-김현덕씨 부부.  
 봉헌-신현섭씨 가족.  
 차주전례: 해설-정승훈, 독서-신태섭씨 부부.  
 봉헌-정승관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582,910원 □ 교무금: 834,5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한 봉 섭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 동 욱

- ※ 환영: 한봉섭(시몬)신부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장년회: 20일(토) 저녁미사 후
  2. 성지경, 청년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탈상: 박복례(아가다) 20일, 원의암.
  4. 성지가지: 사무실에.
  5. 성서읽기: 시편121편~130편.
  6. 금주청소: 순교자의 모후Pr.
  7. 금주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양대환 ②김연순  
 봉헌-한동욱, 황옥섭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이미숙, 독서①유순천 ②송정자  
 봉헌-최상욱, 안복섭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324,300원 □ 교무금: 278,5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 중 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용

- ※ 연중 제6주일!  
 ※ 축! 환영: 새로 부임하신 이중원(토마스)신부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회의: ①프란치스코3회-오늘 오후2시 ②성모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③전례부-2월18일(목) 오후8시.
  2. 알림: ①봉성체-2월24일(수) ②초등부 6학년 졸업식-2월20일(토) 오후4시30분 ③중·고등부 동계 피정-2월20일(토)~21일(일) 장소-상지원, 출발시간-2월20일(토) 오후3시(시간엄수바람) ④초·중·고 교리교사학교-2월15일~20일. ④T.E.C피정-2월23일~25일(2박3일)나바위피정의 집
- 지난주 봉헌금: 817,150원 □ 교무금: 565,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복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 현유복 신부님! 최옥자 수녀님! 환영합니다.
1. 오늘 공식미사 후: 환영식.
  2. 오늘 공식미사 후: 꾸리가 있습니다.
  3. 성지가지: 2월21일까지 사무실에 제출바랍니다.
  4. 예비자 교리: 목요일-저녁미사 후  
 금요일-어머니미사 후
  5. 청소년사: 2구역 3반, 4반, 5반.
- 지난주 봉헌금: 825,800원 □ 교무금: 828,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회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성 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염 태

1. 금주: ①정성만(세자요한)신부님 환영식(공식미사 후) ②자모회(전10시) ③일치의 모후Cu(후2시) ④초·중·고등부 졸업식(3시, 5시미사) ⑤사목회(후8시)
  2. 성모회: 17일(전11시) 3. 구역반장회의: 18일(전11시)
  4. 차주: ①바녀의 성모Cu(후2시)
  5. 각 가정에 있는 성지가지 18일까지 사무실에 내주세요. 40분.
  6. 매주 수요일 명화상영: 17일. 제목: 성의(聖衣) 시간: 오후7시
  7. 성모성심회 참림: 2월4일 축하합니다. (40일~50대 주부신자) 회장: 백홍자(안나) 부회장: 조정자(세실리아) 총무: 양명순(아네스) 회계: 장옥희(루갈다)
  8. 성가정회 임원개편: 회장-은명운(세실리아) 부회장-윤림자(말가리다) 총무-전영숙(빅토리아) 회계-김영원(올리바)
- 지난주 봉헌금: 1,765,35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강 상 근

1. 꾸르실료 남성44차 감습회: 18일~21일 김부웅, 최현근, 임맹환, 임봉순, 유옥근, 강습의 성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중·고 동계피정: 24일~26일. 장소-동해원. 회비 4천원.
  3. 교리교사 2차 교사학교: 15일~20일 전동, 후원바랍니다.
  4. 구역미사 일정: 16일-4구역4반 전10시30분, 6구역2반 후3시, 3구역4반 저녁8시, 18일-10구역1반 전10시30분, 10구역6반 후3시, 10구역2반 저녁8시, 19일-7구역1반. 전10시30분, 9구역5반 후3시, 10구역3반 저녁8시.
  5. 교도스 후원회 월례미사: 15일 10시30분 썬타3층 회의실.
  6. 성모회: 17일 어머니미사 후, 지난해의 성지가지 내주세요.
  7. 초·중고 신임 교리교사 임명: 초등부-김하생, 김종남, 이소담, 유영일, 김경희. 초등부-김은영, 박한순, 강경태, 김효연.
- 지난주 봉헌금: 1,075,200원 □ 교무금: 1,492,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갈

1. 성모회: 오늘 미사 후.
2. 반모임: 16일(화)오전-성원골드. 오후-한양문남. 저녁-삼정1,3. 17일(수)오전-화산1. 오후-신일. 18일(목)오전-거성그린1. 오후-거성그린2.
3. 초중고 주일학교(토요일) 개학: 초등부-오후3시. 중고등부-오후6시. 부모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4. 자모회: 다음주일 미사 후-올드레아.  
 금주전례: 장병순, 독서·봉헌: 노영자, 전승중.  
 차주전례: 한병갈, 독서·봉헌: 송민숙, 이광식.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장 삼 호

- ※ 오늘은 연중 제6주일입니다. 사목회장이 등 섭
1. 자모회: 17일(수) 오전10시30분.
  2. 꼬미시울: 20일(토) 오후3시.  
 ※ 예비자교리: 직장인(일, 오전9시30분) 청년반(수, 오후8시) 부인반(목, 오전10시) 노인반(금, 오전10시) 학생반(토, 오후6시)
  - ※ 성서세미나: 2월27일 오후2시-3월1일 오후5시까지(장소-가톨릭센터회의실, 대상자-모든희망자, 봉사자, 가르침봉사자. 강사-서울교구성서세미나강사진. 참가비-1만원(숙비제외)
  - ※ 파티마신협정기총회: 19일(금)오후2시 성당에서.
  - ※ 미사안내: 금주-상지옥좌, 성실.  
 차주-지혜로우신모후, 정의의 거울
- 지난주 봉헌금: 1,419,730원 □ 교무금: 1,715,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익 도

1. 모임안내: ①올드레아-공식미사 후 ②기우회-공식미사 후 ③제대회-19(금)10시미사 후 ④바자회 준비위원회-저녁미사 후.
  2. 주일학교 졸업식: 20(토) 오후4시미사 후.
  3. 성지가지는 오늘까지 회수합니다.
  4. 파티마신협정기총회: 19일(금) 오후1시30분. 장소-효자성당.  
 차주모임: 성전전축성암위원회.  
 금주전례: 해설-강진상, 독서-①심학섭 ②나화성  
 봉헌안내-강인성부부, 강인수부부.  
 차주전례: 해설-김낙환, 독서①조세희 ②정영숙  
 봉헌안내-손효성부부, 이상춘부부.
- 지난주 봉헌금: 1,368,800원 □ 교무금: 1,899,000원